https://doi.org/10.33156/philos.2020.57..004

흄의 정념론과 이중수반의 관계주의

김 다 솜*

주제분류 윤리학

주 요 어 정념, 인상, 관념, 지각, 이중관계, 이중수반, 관계주의, 수반 관계, 관계적 속성, 수반적 속성, 공감, 유용성

요 약 문

이 글은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동반하는 정념의 발생 과정을 관계주의 관점에서 추적한다. 흄은 간접정념의 발생을 정념의 원리인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념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나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포함하면서 인간적 본성의 경향성과 자아에 매개된 관계를 나타내는 이중수반 관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설명 원리를 도입한다. 흄은 정념 발생의 이중수반의 관계를 정념과 유용성 및 공감의 관계로 이해한다. 따라서 나는 흄의 정념론을 이중수반의 관계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시도는 최종적으로 흄의 윤리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평가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중앙대학교

www.kci.go.kr

1. 자연주의와 정념의 역학

흄의 철학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 흄의 윤리이론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른 역사적 위치에 있는 철학자들에 비하면 흄의 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는 원인은 흄 자신에게 있다. 흄의 윤리이론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흄은 경험적 자연주의, 인식론적 회의주의, 확률적 귀납주의 등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론적 측면에서는 주관적 감정주의, 객관적 실재론, 객관적 상대주의, 공리주의, 철학적 자연주의 등이 혼재된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 내부에서도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이견들이 존재한다. 그 근본 원인은 흄 스스로가 하나의 체계적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과학적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자연주의자로서 흄의 윤리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철학자'[1]의 학문탐구방법론으로 실험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흄은 논리학, 수학, 자연철학, 도덕학, 미학(비평), 정치학, 종교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학문이 의존하고 있으며, 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철학의 제일의 목표로 삼는다. 흄은 인간 본성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을 인간학(science of man)이라 부른다.(T, xv-xvii)[2] 그 스스로 도덕철학에서의 뉴턴이 되고자 했듯이

1) B. Stroud, *Hume*, 1쪽.

2) 흄의 『인성론』(지성론, 정념론, 도덕론으로 구성된 3부작)은 T로 표기해서 본문에 직접 인용한다. 다른 저자의 인용도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 그리고 한글본은 이준호의 번역본을 참조했으며, 한글 번역본과 다른 것은 필자가 수정한 것이다. 약어 표기와 출처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

www.kci.go.kr

흄은 자연 탐구에 적용되던 실험철학의 원리와 방법을 인간의 본성에 관한 탐구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 경험적 관찰과 실험, 그리고 귀납적 추론, 이것이 흄의 철학적 방법론이었다. 그의 철학을 '자연주의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3] 흄은 그것을 내심 "매우 쉽고 명료한"(T, xv) 철학이라고 자평한다.

경험의 권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 그 어떤 원리도 거부하는 흄의 인간 본성론에서 그의 통찰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 정념론이다. 도덕론 역시 이에 못지않은 해석상의 차이를 야기하지만, 정념론은 도덕론의 토대가 되면서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흄 역시 3권으로 이루어진 『인성론』의 한 부분(제2권)인 '정념론'을 하나의 독립적인 저서처럼 기획하고 있다. 흄은 자연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의 정신을 두뇌의 생리적 작용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하나의 신체이자 정신이다. 그러므로 정신 현상은 물리적-생리적 현상이며, 동시에 심리적 현상이다. 흄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의 구조나 생기에서 비롯하거나 대상들이 인체의 외부 기관을 자극하는 데서 비롯되는 정신의 지각과 작용을 '정념론'이라는 이름 아래서 고찰한다.

이 글에서 나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동반하는 정념의 발생 과정을 관계주의(relationalism)의 관점에서 추적한다. 관계주의는 도덕적 속성으로서 공감과 유용성은 정념과 사회성의 상호관계로부터 성립하는 관계적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4] 이에 따르면, 공감과 유용성은 도덕적 속성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성향적 특성이다. 흄은 간접정념의 발생을 정

3) B. Stroud, *Hume*, 224쪽 이하; 이준호, 『흄의 자연주의와 자아』, 49-114쪽; Jesse J. *Prinz,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2-4, 9쪽; W. V. O. 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26쪽 참조. 그리고 흄의 자연주의를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N. K. Smith, "The Naturalism of Hume", in *Mind*, vol. XIV 참조.

4) '관계주의'는 Alan H. Goldman(*Moral Knowledge*, 1988)의 흄 해석에서 착안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다솜, 「흄의 자연주의 윤리학」, 33-54쪽 참조.

www.kci.go.kr

념의 원리인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관계주의는 이 이중관계의 원리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념의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나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포함하면서 인간적 본성의 경향성과 자아에 매개된 관계를 나타내는 이중수반(double supervenience) 관계라는 보다 포괄적인 설명 원리를 도입한다. 이중수반 관계는 이중관계에 사회적 자아(자아와 사회성)의 관계가 추가된다. 이에 의하면, 흄은 정념과 덕의 발생의 이중수반 관계를 자아에 매개되어 있는 정념과 사회성의 관계로 이해하며, 그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유용성과 공감이다. 그리고 관계적 속성이자 도덕적 속성으로서 유용성과 공감은 인간 본성의 근원적 경향성이다. 이에 기초해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이 흄의 근본 의도이다. 흄에게 도덕이란 이러한 본성적 경향성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규범적 행위들이며, 결국 사회도덕은 공감에 기초해서 공적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실천적 합리성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흄의 정념론을 이중수반 관계론 혹은 관계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수반 관계에 대한 원리적 해명에만 집중할 것이다.[5] 이러한 시도는 최종적으로 흄의 윤리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평가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수반과 인상/관념의 관계

흄에 의하면, 인간 정신의 모든 지각은 인상과 관념, 두 종류로 환원된다. 달리 말하면, 지각은 인상과 관념으로 나타난다. 양자는 사유 또는 의식에 들어오는 힘과 생동성의 정도에서만 차이를 갖는다. 또 “관념은

5) 도덕적 속성으로서 공감과 유용성의 관계 및 이와 실천적 합리성의 관계에 관한 고찰은 별도의 독립된 글에서 다룰 것이다.

www.kci.go.kr

인상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정신의 지각은 모두 이중적이다.(T, 3) 즉, 인상에서 관념으로, 관념에서 인상으로, 다시 인상에서 관념으로의 전이가 일어날 때,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정념이 귀속되는 대상과 관계하며, 그 원인이 별도로 산출한 감각은 그 정념의 감각과 관계한다."(T, 286) 이것이 정념 발생의 원리 혹은 정념의 원리인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이다.

인상에서 관념으로, 관념에서 관념으로, 다시 관념에서 인상으로, 인상에서 관념으로의 전이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정념 발생은 항시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자아의 관점을 수반한다. 흄은 이 정념과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자아의 관점의 관계를 하나의 통일적 원리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개의 주제로 다루곤 한다. 이 때문에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의 원리만으로는 정념 발생의 작용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흄의 설명에 주목해보면,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또한 한 정념과 다른 정념의 이중관계에도 적용된다.[6] 그리고 이 관계에는 특정한 정념을 발생시키는 성질의 작용이 수반한다. 가령, 흄이 들고 있는 예시를 보면, "전장에 나선 병사가 자신의 친구와 전우를 생각하면, 그에게는 자연히 용기와 사기가 용솟음친다. 그리고 그 병사가 자신의 적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두려움과 전율이 엄습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서 유래된 어떤 새로운 정서는 자연히 용기를 증대시키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두려움을 증대시킨다."(T, 420) 주지하듯이 이러한 정념의

6) 흄에 의하면, "정념의 발생에서 애초의 원인 인상을 통해 하나의 정념 혹은 두 정념이 산출될 수도 있으며, 이 두 정념 사이에 오직 한 가지 관계만 있거나 때로는 어떤 관계도 없을 수 있으며, 때로는 자주 두 정념은 쉽게 뒤섞여 합일되는데, 지배적인 정념은 열세인 정념을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키며, 상승된 기운은 그 방향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인다. 결국 지배적인 감정에서 이 변화가 유래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T, 420)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전이와 변화, 공조와 합일이 다른 것이 아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다. 흄을 따라서, 그리고 흄이 곳곳에서 그리고 산발적으로 강조하듯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정념 발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인간 본성의 경향성과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이 또한 하나의 정념이다)의 관점, 이 두 속성의 작용과 관계이다.

www.kci.go.kr

발생과 전이 및 전환 등을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방향의 정념을 유발시키는 어떤 성질적 속성(경향성, 본능적 성질)이 개입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나 느끼고 생각하는 주체인 자아의 관점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흄은 이것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제각각 고찰한다. 흄이 말하는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는 "어떤 의식적 상태"로서의 지각 자체이며, 인상은 이러한 지각의 "내적 경험"이며, 관념은 인상과는 다른 의식적 상태로서 "개념"이나 "심상"으로 기억되는 무엇이다.[7] 이러한 상태에 대한 반성적 지각은 어떤 성질의 느낌 상태이며, 그것이 바로 정념이다. 따라서 이 성질적 내지는 경향적 속성과 자아의 관점은 항상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념들의 역학관계가 인간 본성 혹은 정신의 본질을 구성한다.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인상과 관념의 상호조력과 결합, 그리고 인상과 관념 모두의 연합을 포함하는 관계로서 정념은 쾌락과 고통의 의식적 감각에 자아에 매개된 어떤 성질들이 부가되어 산출된다. 예를 들면, 간접정념인 긍지와 소심(자부심과 수치심)[8]의 경우에 "긍지는 유쾌한 감각이며, 소심은 고통스러운 감각이다."(T, 286) 이들 감각은 정념의 감각으로서 정념에서 발견되는 정신의 근원적 성질이다. 또 어떤 다른 정념에는 긍지/소심과 구별되면서도 그 역시 정신의 근원적 성질이라 할 수 있는 속성이 존재할 것이며, 그것들이 곧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흄은 그러한 성질에 의거해서 긍지를 긍지로 소심을 소심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근원적이고 자연적인 본능을 통해서 결정되며", 그것은 사유의 특정한 방향을 결정하는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 또는 "내면적으로 의식하는 자아 또는 개별적 인격"(T, 286)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7) G. Dicker, *Hume's Epistemology and Metaphysics*, 5쪽.

8) 이는 'pride and humility'를 번역한 것이다. 본 논문은 '긍지와 소심'을 채택했지만, '자부심과 수치심'의 번역을 포함해 이 각각 단어의 의미와 용례를 친절히 안내해 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www.kci.go.kr

즉, 정념 발생에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실질적 과정으로서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이에 수반하는 자아의 관점(혹은 특정한 속성에 수반되는 작용 관계)이 매개된다. 여기서 '수반'은 자연적 경향성과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의 불가분리적 관계, 그리고 인상과 관념의 관계, 모두에서 일어나는 수반, 즉 이중수반 관계를 반영한다. 달리 말하면 경향성에 수반되는 자아의 느끼고 생각함은 또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의 원리를 따른다. 이러한 정신의 근원적 성질 또는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자아에 매개된 정념의 발생은 도덕론에서 덕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제에까지 이어진다.

흄에게 '수반'은 인상과 관념의 관계를 서술할 때 '그 관계'를 특징짓는 표현이다. 흄 자신은 '수반한다'의 뜻으로 'attend'를 사용한다. 간혹 'introduc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흄은 이 표현을 특별히 개념화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를 '수반한다'(supervene) 또는 '수반'(supervenience)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서 흄의 이론을 특징짓는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의 '관계'(relation)라는 개념만으로는 정념의 '발생' 혹은 '유래', 특히 그 '과정'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도입해서 사용하려는 수반 개념은 자연적인(비규범적인) 속성과 비자연적인(규범적인) 속성, 이 양자의 관계를 환원 혹은 수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일련의 메타윤리적 논의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9] 윤

9)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supervene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발생하며, 또한 그 상황을 변화시킨다'(to happen in the middle of a situation that already exists, and change that situation)는 것이다. 이 단어는 attend에 비하면 서로 연관 있는 것들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로부터 다른 무엇을 발생 및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리철학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의 의미도, 비록 제한적 의미이긴 하지만,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김다솜, 「흄의 자연주의 윤리학 - 정념과 덕의 이중수반 관계론」, 22쪽.

www.kci.go.kr

리학적 관점에서 수반 개념은 기본적 의미에서 규범적 속성들이 서술적 속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어 나온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반 개념은 양자 간의 환원 가능성 문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흄은 근본적으로 수반과 환원 문제에서 비켜 서 있다. 흄의 자연주의는 정념이 물리적 사실과 구별되는 심리적 사실이면서 이 역시 인간 본성의 자연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흄의 문제는 정념이 정신의 심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관계의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관계 개념의 중복적 사용과 함께 연합, 전이, 전환, 결합, 인력, 경향성, 성질, 성향, 속성 등 다양한 개념들에 의지해서 정념의 발생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 수반 개념의 사용은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보다 단순한 방식의 설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수반 개념은 비규범적(자연적) 속성과 규범적(비자연적) 속성 사이에 성립하는 수반이나 환원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 속성 내에서의 관계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흄 역시 자연-물리적 속성과 자연-정신적 속성 간에 어떤 관계나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의 주제는 아니다.

흄에게 있어서 정념 발생에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내재적으로는(internally) 본성적 경향성 및 이와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는 자아의 관점에 수반되는 속성을 매개로 한 이중수반 관계이다. 여기서 수반적 속성(supervenient property)은 인상/관념 이중관계에서 자아가 느끼고 생각하는 관념을 수반하게 되는 성질로서 본성적 경향성과 결합된 자아의 관점을 제한한다. 즉, 이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의 관점 역시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성질, 성향, 속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이 수반적 속성은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 혹은 본능적 속성이며, 동시에 이 경향성에 수반하는 성질을 지닌 자아의 관점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념

www.kci.go.kr

은 언제나 이 속성에 수반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수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왜 다른 정념이 아닌 어떤 특정한 정념(가령, 긍지)을 갖게 하며, 또 강한 긍지나 약한 긍지처럼 차이 나는 정념을 갖게 되는지가 설명 가능하다.

정념 발생의 이중수반 관계는 특정 정념을 낳는 원인 인상에서 인상으로, 인상에서 관념으로, 이로부터 다시 자아에 매개된 수반적 속성에서 표상되는 관념에서 관념으로의 전환과 전이, 공조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발생적 수반 관계이다. 비록 그 자신이 개념화한 것은 아닌 이중수반 관계를 지배하는 수반적 속성과 수반 원리로 유용성과 공감을 제시한다. 다만 '정념론'에서는 유용성 개념을 특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유용한 성질들에 주목하며, 대부분은 공감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주력하다. 반면에 후기 저술인『도덕원리연구』(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에서는 유용성의 원리를 특별히 강조한다. 예를 들면, 전자에서는 "유용성은 공감을 통한 우리 도덕적 감정의 원천이다."(T, 577)라고 말함으로써 공감 중심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공감과 도덕적 감정을 중시하면서도 "사적 유용성과 공적 유용성" 그리고 "유용한 성질/속성" 중심의 설명을 시도한다.

이제 이중수반 관계와 관련해서 '성질' 혹은 '속성',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따라가 보자. 감각과 정념(혹은 정서)은 우리 영혼에 최초로 나타나는 인상이며, 사유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 인상의 희미한 심상(image)이 관념이다.(T, 1) 그런데 이 인상은 근원 인상과 반성 인상으로 구분된다. 감관 인상이나 신체적 쾌락과 고통은 근원 인상으로서 각각 '꽃을 봄'과 '바늘에 찔림(의 고통)'과 같이 모두 영혼에서 직접 발생하는 최초의 지각들, 즉 근원 인상이다. 근원 인상(감각 인상)은 꽃을 봄과 바늘에 찔림(의 고통)의 경우처럼 어떤 다른 매개 없이 우리 영혼에 최초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지각이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근원 인상이 생기게 되는지는 해부학이나 자연과학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www.kci.go.kr

근원 인상에서 단순히 꽃을 봄과 달리 고통(혹은 쾌락)의 지각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정신은 신체적 고통과 쾌락을 (인상으로) 느끼고 (관념으로) 생각하게 된다.

정념의 발생과 관계하는 2차 인상인 반성 인상은 근원 인상들 가운데 "어떤 것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거나, "그 인상의 관념"이 개입함으로써 유래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어떤 것에서'와 '그 인상의 관념의 개입'에 대한 흄의 설명도 그리 친절하지 않다. 흄은 일단 반성 인상은 '근원 인상이나 그것의 관념에서 발생하는 인상으로서' 정신이 신체적 고통과 쾌락을 "느끼고 생각할 때"(T, 275, 276) 생기는 인상이다. 이는 "느끼고 생각할 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다. 하지만 통풍에 관한 흄의 예시를 살펴보면(T, 276), 통풍의 발작은 우리의 신체에 고통을 유발하는데, 그것은 근원 인상이기 때문에, 왜 다른 것이 아닌 그와 같은 고통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통풍의 고통은 우리에게 비탄과 희망, 두려움과 같은 정념을 생기게 한다. 이렇게 신체적 고통과 쾌락 같은 근원 인상으로부터 "직접 유래하거나" 또는 "이 인상의 관념이 개입함으로써 유래하는" 반성 인상에 속하는 것이 바로 "정념(passion) 및 이와 유사한 정서(emotion)"(T, 275)이다. 흄은 정념과 정서는 "그 본성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T, 419)고 하면서도, "어떤 정념을 수반하는 정서는 쉽게 정념으로 전환"(T, 419)되는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구분 역시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다"(T,276)라는 단서를 달기도 한다. 실제로 흄은 이 두 개념을 많은 경우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10] 우선 흄이 염두에 두

10) 정념(passion), 정서(emotion), 감성/정감(sentiment), 정감(affection), 느낌/감정(feeling) 등의 용어의 의미 차이와 번역어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eeling은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 감정이나 느낌으로 번역해서 사용하지만, 흄이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개념들은 그것이 어떤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호환 가능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www.kci.go.kr

고 있는 기본적인 차이는 반성 인상을 “차분한 것과 격렬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과 관계있는데, 차분한 것에 속하는 것들을 정서, 격렬한 것에 속하는 것들을 정념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격렬한 (반성)인상들인 정념들조차 “거의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한 정서로 약화되기도 한다”(T,276)는 점에서 이들 정념과 정서는 유사하기도 때로는 구분하기 어렵기도 한 감정(느낌; feeling)들이다. 또 반대로 정서 역시 “격렬한 정서”(T,276)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엄밀하게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이에 흄은 ‘정념론’에서 기본적으로 격렬한 반성 인상 혹은 “격렬한 정서 또는 정념과 그 본성과 기원, 원인과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반성 인상을 기준으로 (흄 스스로 말하듯이,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차분한 것(느낌)으로서 정서 혹은 차분한 정서에는 행동과 미적 구성, 외부 대상에서 느끼는 미와 추, 반면에 격렬한 것(느낌)으로서 정념에는 사랑과 미움, 비탄과 기쁨, 긍지와 소심 등이 속한다. 정념들은 대체로 차분한 감정인 미와 추 등에서 발생하는 정서들보다 더 격렬하다고, 혹은 덜 차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성 인상이 근원 인상의 두 가지 유래와 관계있듯이, 반성인상인 정념 역시 직접정념과 간접정념으로 구분한다. 근원 인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하는 직접정념에는 “선(good)이나 악(evil),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욕구, 혐오, 비탄, 기쁨, 희망, 두려움, 절망, 안도 등이 있다. 그리고 간접정념에는 “같은 원리”에서 유래하지만 “다른 성질(quality)들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긍지, 소심, 야망, 허영심, 사랑, 미움, 질투, 연민, 심술, 관용, 그리고 “이것들부터 수반하는” 정념들이 있다.

이제 흄이 말하는 정념들, 특히 간접정념의 발생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정념들인지가 좀 더 명료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선과 악은 왜 고통과 쾌락과 함께 반성인상이면서 직접정념인지, 또 왜 “선과 악은 쾌락과 고통과 같다”(T, 399, 438-9)는 것인지, 이

www.kci.go.kr

경우에 선과 악에 대한 흄의 이해는 전통적인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통과 쾌락과 관계하면서도 간접정념은 직접정념과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지 등 흄의 친절하지 못한 설명을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동일한 원리", 그리고 "다른 성질들과 결부되어 발생", "이것[간접정념]들로부터 수반하는 정념들" 등 원리, 발생, 수반과 같은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이다.

3.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

흄에 의하면, 정신의 활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관념연합과 상상력이다. 그리고 이 두 원리 중에서 관념연합 역시 상상력 안에서 연합된다는 점에서 정신은 상상력이 하는 활동 자체이며, 따라서 상상력은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의 법칙 같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상상력이 관념연합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념연합은 지각 경험의 연합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원리가 상상력의 작동 방식이다. 곧 우리의 상상력이 작동하는 방식들 중의 하나가 관념연합이므로 좁은 의미에서 관념연합 역시 정신의 작동 원리인 것이다.

정념과 관계하는 관념연합은 기본적으로 정신 현상으로서 정념이 갖는 고유한 성질과 관계한다. 특히 직접정념은 어떤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심리적 사실로서 "선이나 악 그리고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만" 도덕성의 발생의 토대가 되는 간접정념은 직접정념에 다른 성질들이 결부되어 발생한다.(T, 276) 흄이 다른 성질과 결부된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이다. 하지만 흄은 비록 간접정념의 발생

www.kci.go.kr

문제를 다루면서 정념의 원리인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반드시 자아와의 관련이 결부되어야 한다.”(T, 279)고 말할 뿐, 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간접정념을 ‘자아에 매개된 정념’이라면, 직접정념은 ‘자아에 매개되지 않은’ 정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기본적으로 연합(association)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 흄은 연합의 또 다른 말로 인력(attraction)이라는 말도 사용한다.(T. 283) 이 인력은 인상과 인상, 인상과 관념, 관념과 관념 사이에 모두 작용한다. 흄은 이 인력을 “자연이 부여한 것”(T, 289)이라 하여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 즉 본능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가 ‘정념의 역학’이라는 말로 흄의 인간 본성에 관한 탐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이다. 자연과학에서의 인력은 곧 사물들 간의 힘의 작용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인 데, 흄은 이를 정신과학의 대상인 정신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곧 정신의 본성을 특징짓는 정념들의 발생과 관계를 인력의 법칙처럼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흄의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목적과 의도 아래서 진행된 것이다.

관념연합의 대표적인 원리들은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이다. 이들 관념들의 성질이나 원리가 상상력이 활동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상상력이 이들 원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주의자로서 흄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상상력의 작동 방식이다. 흄은 “상상력의 직능보다 자유로운 것은 없다”(T, 10)고 말한다. 인간 정신의 근원적 활동성으로서의 상상력이 아니라 지성에 제약된 상상력은 오랜 “습관”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나 사유방식을 획득했을 뿐이며, 그 원천적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근원적 상상력을 미리 제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그런데 흄은 상상력이 왜 그러한 연합을 낳고 또 그에 따라 사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T, 11)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관념연합 역시 어떻게 이루어지며 작용하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

www.kci.go.kr

그런데 관념연합과 관계하는 인상은 근원 인상으로서 1차적인 감각 인상, 즉 “감관 인상과 신체적 고통과 쾌락”(T, 275)이다. 반면에 정념과 관계하는 인상은 2차 인상으로서 반성 인상이다. 이에는 정념과 함께 이와 유사한 정서들도 포함된다. 지식의 문제와 관계하는 관념연합은 인상과 관념의 결합원리로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 역시 정신의 지각 원리, 즉 정신이 지닌 자연적 경향성에 다름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정신은 대상의 지각을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유사성의 원리의 경우에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관찰에서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유사한 현상들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자연적으로 필연성의 관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자체로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가지지 않는 유사한 여러 사례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정신에서 일뿐이다.”(T, 165) 그리고 정념과 관계하는 인상과 관념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흄은 정념론에서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인상들 사이에도 연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관념들은 유사성과 인접성 그리고 인과성 등을 통해 연합되지만, 인상은 오직 유사성을 통해서 연합된다”(T, 283)고 말한다. 관념의 연합처럼 인상의 연합도 있는데, 전자와 달리 후자에는 유사성의 원리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령, 노란색에 대한 인상은 언제나 우리가 노란색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다른 색 지각은 불가능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인접성이나 인과성의 관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정념에 관계하는 인상은 지성에 관계하는 인상과는 다르다. 지성 인상은 대상화가 가능한 지각인 반면에 정념 인상은 그와 같은 대상화가 불가능하다. 장미꽃의 인상은 우리에게 장미꽃이라는 관념으로 기억되면서 언제든 그것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의 인상은 하나의 느낌이며, 그 느낌에 대한 생각 역시 느낌으로 기억되는 것으로 기껏해야 은유

www.kci.go.kr

적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이다. 흄은 이것을 “느낌으로 확신한다”(T, 286)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 인상의 은유나 확신은 인상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유지될 수 있을 뿐이다.

유사연합의 관계만이 적용되는 인상과 달리, 인상들 사이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관념들, 이를테면 긍지/소심의 원인(집)과 그 대상(긍지/소심의 정념을 갖는 나) 사이에는 인접 관계나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들 관계에는 반드시 그러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어떤 성질이 부가되며, 또 이를 통해 작용한다. 비단 성질의 증감뿐만 아니라 관계의 원근에 비례하여 크거나 작은 정도의 긍지가 유발된다. 이 관계의 원근이나 정도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곧 그것이 자아의 관점 또한 반영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 요소들 모두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 속에서 특정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 요인들이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이중관계는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 불러일으키는 정념은 이와 관련된 인상과 관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인상과 관념은 어떤 성질(긍지의 유쾌한 감각, 소심의 고통스러운 감각)을 수반하며, 이 수반적 속성은 또한 관념을 매개로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의 관점과 본성적 경향의 성향이나 성질에 수반되는 것이다. 결국 자아를 매개로 이중수반이 발생할 때, 수반적 속성은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에게서 발생하는 인상과 관념이며, 동시에 본성적 경향성에 제약되어 있는 자아가 생각하는 성질적 속성이다.

4. 정념과 이중수반 관계

흄에 의하면,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자연이 그 정념에 귀속시킨 대상과 관계하며, 그 원인이 별도로 산출한 감각은 그 정념의 감각과 관계한다. 이와 같은 인상과 정념의 이중관계에서 정념이 유래한다.”(T,

www.kci.go.kr

286) 그리고 바로 이어서 흄은 “한 관념은 자신과 호응하는 관념으로 쉽게 전환되며, 한 인상은 자신과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인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이 서로 보조하고 정신이 자신의 인상과 관념 모두의 관계로부터 이중적 충동(a double impulse)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러한 전이는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T, 287)고 설명한다. 이러한 흄의 설명은 정념 발생에서 그 원인과 주체, 대상이 인상 및 관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흄은 정념이 영혼(정신)에 불러일으키며 그(영혼) 자신의 존재와 본질을 구성하는 정념의 감각 또는 특유의 정서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 느낌으로 이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느낌을 벗어나면 추리와 논쟁이 모두 무의미하다”(T, 286)라고까지 자신한다. 그러나 흄은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자 정신 그 자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정념들의 발생을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지만, 자신의 확신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흄의 정념론은 상당 부분 그 자신의 천재적인 통찰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역추적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주의해서 ‘정념론’의 ‘제1부 긍지와 소심’의 장에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 기초해서 발견한 정념의 발생과 관계하는 수반적 속성에 도달할 때까지 (간접)정념의 원인과 관계하는 정념의 대상, 정념의 속성, 그리고 그것의 자아와의 관계 등에 대한 흄의 분석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 정념을 산출하는 관념은 정념의 원인과 관계하며, 정념이 산출한 관념은 정념의 대상과 관계한다. 전자는 긍지라는 정념의 원인으로서 대저택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 경우 정념의 대상, 즉 정념이 산출한 관념 즉 긍지는 그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는다. 그것이 긍지의 본질이다. 그리고 대저택으로 하여금 긍지라는 정념을 산출하게 하는 원인 성질은 대저택에서 발견되는 어떤 성질이다. 먼저 그 과정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이 과정을 전체적

www.kci.go.kr

으로 지배하는 속성은 유용한 성질과 공감이다. 쉽게 말하면, 긍지는 유용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느끼는 정념이다.

간접정념의 발생에 매개되어 있는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의 경우 "내가 어떤 정념을 가질 때, 나는 어떤 특수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존재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 정념은 느낌으로 존재한다."[11] 또 어떤 느낌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떤 성향(propensity; disposition)과 성질(quality), 즉 속성(property)을 갖는다는 것이며,[12] 그것의 작용이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긍지와 소심의 경우, 이 둘은 상반되는 정념이지만, 정념 자체는 동일한 대상에 관계한다. 느껴지는 성질의 입장에서는 정념이 주체이며, 그 대상은 그것을 느끼는 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긍지와 소심의 직접적 대상은 우리가 사유, 행동, 감각 등을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자아이거나 동일한 인격이다."(T, 329) 그리고 자아가 고려되지 않으면, 즉 자아 자신의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긍지나 소심은 전혀 생기지 않는다.(T, 277-8) 자아의 관점에서 불러일으켜진 정념이 긍지나 소심이며, 또 그것을 긍지나 소심으로 의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자아 또는 인격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겨난 정념 자체가 자아를 구성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자아 자신이다. 정념으로서의 자아인 것이지 미리 특정한 실체나 특정한 모습이나 색깔을 하고서 주어져 있는 자아는 아니다. 흄에게 그런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신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념들이 존재하듯이 자아는 "다중적이고 중첩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13]

자아의 존재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긍지의 정념을 갖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간접정념은 일차적으로 정신의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성질에

11) B. Stroud, *Hume*, 159쪽
12) B. Stroud, *Hume*, 168쪽
13) 이준호, 「흄의 자연주의와 자아」, 149쪽.

www.kci.go.kr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인상인 직접정념과 관계한다. 이 과정에서 1차 수반이 일어난다. 만일 대저택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직접적인 만족의 감정이 직접정념이다. 하지만 이제 이 대저택이 나의 집이거나 혹은 나와 관계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누군가의 집에 대한 만족의 감정은 간접정념이다. 이 간접정념을 지배하는 관계적 성질 또한 유용성과 공감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밝히겠지만, 이 간접정념과 관계하는 유용성과 공감이 도덕적 정념 혹은 덕과 관계할 때 이 성질과 감정은 공적 유용성이나 일반적 관점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생기는 간접정념으로서) 긍지를 느끼는 주체는 생각하는 자아이며, 또 자아는 그 대저택을 자신과의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수반이 2차 수반이다. 이러한 수반의 이중적 발생은 간접정념의 발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간접정념은 직접정념의 수반적 속성에 제약되어 발생하는 1차적 수반의 결과이며, 동시에 자아의 관념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2차적 수반의 결과이다. 이러한 수반 관계를 지배하는 관계적 속성은 유용성과 공감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특정한 대저택이 대부분의 경우 이미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저택에 대한 직접정념과 간접정념이 유발하는 감정 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인식과 영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내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라면 1차 수반과 2차 수반을 포함하는 이중수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도덕적 선택 행위의 문제로서 도덕적 수반 즉 도덕적 속성과 실천적 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재의 주제와 관심사는 아니다) 흄은 ‘인성론’과 ‘도덕원리연구’ 등에서 이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각각 독립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과정에서 정념과 믿음, 그리고 평가와 판단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이해를 허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www.kci.go.kr

이제 이중수반 관계의 과정과 단계 각각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자.

흄의 설명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긍지와 소심의 경우에, 자아는 정념의 대상이지 원인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념의 원인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자아로 하여금 긍지나 소심의 정념을 갖게 하는 성질, 굳이 표현하자면 소심한 성질 혹은 자랑스러운 성질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또 그것은 각 정념에 고유한 것이면서 그 두 정념을 완전히 대등한 정도로 산출하지 않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1차적으로 자아가 느끼는 정념의 속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흄이 언급하고 있는 긍지가 갖는 성질적 속성으로는 '이로운'(advantageous), '의기양양한'(elate) 성질, 그리고 소심의 성질적 속성으로는 '의기소침한'(deject) 성질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흄이 집중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상상력, 판단력, 기억력, 기질 등과 같은 정신의 모든 가치 있는 성질들, 즉 재치, 총명, 학식, 용기, 공정, 성실 등은 모두 긍지의 원인이며, 그 반대의 성질은 소심의 원인이다."(T, 279) 그리고 이러한 성질을 지닌 속성이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념의 원인과 정념의 대상의 구분은 동시에 작용하는 성질과 그 성질이 담긴 주체의 구분을 낳는다. 자신의 아름다운 집에 대한 자랑(정념)에서 정념의 대상은 그 자신이며, 정념의 원인은 그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이 그에게 자랑의 정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집에 부속하는 성질적 속성 때문이다. 모든 집이 자랑스러운 정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집이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성질적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적으로 자랑스러운 성질, 정확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할만한 성질이어야 할 것이다. 그처럼 긍지를 느끼도록 만드는 원인에 대해서 흄은 "정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하나 이상의 여건들이 있으며, 그 정념들의 결과는 이 여건들에 달려 있다"(T, 281-2)는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은

www.kci.go.kr

이를테면 자신의 집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만드는 원인은 집이라 하더라도 모든 집이 언제나 항상 긍지의 원인인 것은 아니듯이-흄에 의하면, 그것은 자연이 정념의 원인들을 각각 예견하고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빛을 보게 된 인위적 결과로서 부분적으로 산업과 변심과 행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T, 281)- 어떤 집이 긍지의 원인이라면 그것에는 긍지라는 정념을 산출하는 원인이 되는 공통적인 것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흄은 그것을 "공통적이지만 극소수의 단순한 원리들"(T, 282)일 것이라고 예측한다.14)

흄에 의하면, "인상과 관념은 그것들의 이중관계를 통해 또 다른 인상과 관념으로 스며든다."(T, 290) 그리고 정념의 원인이 되는 인상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연합)의 작용방식은 유사성을 통해 서로를 아주 크게 "후원"하고 "고무"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이 두 원리가 한 대상에서 공조할 경우 전이는 더욱더 쉽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인상과 인상의 상호 후원과 고무, 그리고 공조는 이미 그것이 반성인상이기 때문에 그 인상의 성질이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관념을 표상하게 하며,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관념의 전이를 가져오고, 다시 이 관념은 자신과 호응하는 관념으로 쉽게 전환된다. 그러므로 흄이 말하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정념의 원인 인상(이 반성 인상은 유사연합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은 정념의 감각으로서 성질적 속성을 갖게 되며, 또 그러한 성질을 지닌 관념을 산출한다. 이것이 (반성)인상과 관념 사이의 하나의 관계라면, 다시 이 관념은 그 정념에 귀속시킨 대상과 관계하는 또 하나의 인상과 관념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 즉, 인상과 관념은 원인과 대상에 각각 이중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념의 원

14) 흄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연은 결코 공허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자연법칙의 단순성의 원리를 정신의 원리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 정신은 엄청나게 많은 원리를 지니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T, 282 참조)

www.kci.go.kr

인과 정념의 대상을 특정한 그것으로 결정하는 성질적 속성을 담지하고 있는 관념의 내용(실제 대상)은 자아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흄은 반성 인상 중에서 직접정념은 정신이 신체적 고통과 쾌락을 "느끼고 생각할 때"(T,276) 생기는 인상이라고 했다. 이 느낌과 생각에 의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 이 느낌과 생각의 주체가 자아라는 점에서 간접정념의 발생은 단순히 그리고 형식적으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라는 수식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앞서 흄은 간접정념을 직접정념의 발생과 "같은 원리"에서, 즉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인상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에 "다른 성질"이 부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바로 이 '다른 성질'은 간접정념을 직접정념과 구별해주는 핵심 요인이면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다소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적 요소다. 이 성질과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의 개입은 인상과 관념의 단순한 형식적인 이중관계를 넘어서 다시 각각의 연합 과정에 또 한 번의 이중관계, 즉 이중수반 관계를 포함하게 된다.

이중수반, 특히 2차 수반의 핵심 요소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의 주체로서 그 자신 또한 정념 자체라 할 수 있는 자아의 존재다. 흄에게 정념으로서의 자아는 인간 본성의 경향성이 지닌 수반적 속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정념들의 집합체 또는 구성체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자아에 매개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며, 흄의 '정념론'은 바로 이 관계를 해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앞서 든 집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원인 인상이 존재하며, 그 인상에 부합하는 집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은 자아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시대와 여건, 즉 사회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아는 한편으로는 자연적 자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15]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는

www.kci.go.kr

자아에게는 자연적 관념과 사회적 관념 모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념의 발생과 관계하는 관념들은 '기억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제약된다.[16] 또한 이러한 제약 역시 두 자아를 관통하는 동일한 성질의 지배를 받는다. 흄에게 정념이란 그러한 자연-정신적 성질의 작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아의 개입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또 한 번의 이중관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지닌 가변성에서 기인한다. 흄은 말하기를, "정신이 정념에 의해 고무되었을 때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정념에만 머물러 있기는 어렵다. 인간의 본성은 매우 자주 변하므로 그와 같은 규칙성을 용인하기 어렵다. 인간 본성의 가변성이 인간의 본질이다."(T, 283) 달리 말하면,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인 본능은 어떤 성향적 특성은 갖고 있지만, 그러한 속성을 구현하고 있는 대상 및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을 고정 불변하는 무엇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 그리고 자아를 매개로 하는 이중수반 관계 모두를 하나의 정념의 원리 아래 묶어주는 성향적 특성, 즉 일반적인 속성을 직접 살펴보는 일이다.

5. 수반과 관계적 속성 : 유용성과 공감

앞선 논의에서는 정념 발생의 이중관계와 이중수반 관계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수반 관계와 수반적 속성을 작용을 지배하는 원리가 공감의 원리라는 것을 언급은 했어도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흄 자신도 공감의 원리를 도입할 때까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아

15) 이준호, 「흄의 자연주의와 자아」, 165-75쪽.
16) S. Priest, *The British Empiricist*, 170쪽.

www.kci.go.kr

마 이중관계의 원리 자체의 해명에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사실부터 추론하려는 자연주의자로서의 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어떻든 이제는 그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속성에 관한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다.

직접정념의 특징은 정념과 자아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념들 자체가 자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아는 정념들의 구성체에 다름 아니다. 정념 이외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선행적으로 실체로서의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념으로서 욕구는 그 자체가 욕구함이자 욕구된 것으로서 자아 자신인 것이다. 혐오는 혐오하는 자아, 기쁨은 기뻐하는 자아, 비탄은 비탄에 젖은 자아 역시 그 자체로 정념이면서 자아인 것이다. 직접정념의 수만큼 자아들이 존재한다.

반면에 간접정념의 경우, 긍지와 소심의 정념을 산출하는 원인으로서 정념에 적용하는 성질, 그리고 정념을 산출하는 관념과 정념에 의해 산출된 관념처럼 정념에 작용하는 성질은 언제나 자아에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만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자아를 매개로 한 정념을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정서적 감정들은 근원적으로 생리적 및 감각적 지각 작용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발생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정신은 그 자신의 "자연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속성"(T, 280)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념들의 역학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그 자신 정신이자 정념이기도 한 자아 또는 이 자아에 매개된 간접정념들은 정신의 근원적 성질이나 1차적 충동과 관계한다.

흄은 자연이 정신에게 부여한 근원적 성질로 인해 2차 성질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의 성질을 정신(영혼) 그 자체와도 동일시한다.(T, 280)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특정 정념들은 이러한 성질이나 충동 혹은 경향성에 수반하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정념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와 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www.kci.go.kr

정신의 근원적 속성에 수반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흄의 정념론은 이와 같은 정념의 발생 과정을 어떻게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윤리이론의 특징과 성격이 좌우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다지 친절하지 못한 흄의 설명은 우리의 정신에서 지각되는 정념의 발생적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관상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된다. 흄의 철학에 대한 해석의 다양함도 대부분 이와 관련이 많다.

흄은 "정념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 유래한다"(T, 286), 또 "도덕성은 특정한 관계들에 수반한다"(T, 465)라고 말한다.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는 정념의 산출에 작용하는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인상에서 관념, 관념에서 인상으로의 전이를 포함하는 "인상들 사이의 관계"와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간단히 표현하면, 이 이중관계는 "인상과 관념의 상호 조력과 함께 인상과 관념 모두의 연합"(T, 284)이다. 그런데 이중수반 관계론에 따르면, 간접정념의 발생은 형식상 단순한 이중관계가 아니라 자아를 매개로 한 이중관계이며,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는 자연 본성적인 경향성과 성질에 수반하는 정념을 산출한다. 이와 관계하는 수반적 속성은 대부분 사회적 유용성과 관련이 깊다. 자아의 관점은 본성적 경향성에 따르기 때문에 이 유용한 성질이 어떤 정념이 산출되는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념의 대상으로서 자아 혹은 자아의 관점에 매개되는 수반적 속성은 동시에 다른 정념 B, C, D 등과 구별되는 특정 정념 A를 산출하는 하는 관계적 속성이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 본성의 경향성에 의한 특정한 "성향적 속성"[17]을 가지면서도 관계적 속성인 것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 이 속성이 관념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자연적 자아 혹은 사회적 자아가 느끼고 생각하는 관념과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17) R. Cohon, *Hume's morality. Felling and Fabrication*, 112쪽.

www.kci.go.kr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변성을 갖는 관념 의존적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수반적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덕적 속성 또한 관계적 속성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준다.[18] 최소한 흄에게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이 갖는 가변성은 동시에 수반적 관계의 가변성, 즉 자아가 생각하는 관념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흄 자신은 이를 이론 구성적 원리 내지는 설명적 원리로 정식화한 적은 없지만,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 속에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관계, 즉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성과 그에서 비롯되는 수반적 속성의 관계가 이중수반 관계이다. 그고 그러한 수반관계를 이루는 속성, 즉 수반적 속성이 유용성과 공감이다.

흄에 의하면, "고통이나 쾌락 따위의 직접 인상이 있고, 이 인상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 등과 관련된 대상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정서와 함께 이 인상은 [그 대상과 관련된] 성향이나 혐오를 막을 수 없지만, 인간 정신의 어떤 잠재적 원리와 함께 긍지나 소심, 사랑이나 미움 따위의 새로운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성향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과 합일되거나 분리되는데, 이 성향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 발생하는 간접정념과 결부되는 한 계속 작용한다."(T, 438-439) 정념을 낳는 원인 성질은, 앞 절에서 언급한 것을 재론하면, 먼저 자아를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정념의 경우에는 '선이나 악, 고통이나 쾌락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욕구, 혐오, 비탄, 기쁨, 희망, 두려움, 절망, 안도)이며, 자아를 매개로 하는 간접정념의 경우에는 고통이나 쾌락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에 매개된 다른 성질들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것(긍지, 소심, 야망, 허영심, 사랑, 미움, 질투, 연민, 심술, 관용 및 이것들부터 수반하는 정념들)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런 정념들을 불러일으키는 반성인상(성질 혹은 속성)을 흄은 "원리들

18) Alan H. Goldman, *Moral Knowledge*, 76쪽.

www.kci.go.kr

의 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고, 원인들 가운데 그 원인들의 작용이 결정되는 공통적인 어떤 것을 찾아보는"(T, 282) 방법에 따라 가능한 속성들을 발견하기 위한 탐구를 진행하는데, 정념의 인상의 경우에는[19] 유사성의 연합을 통해서 인상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나 연합의 작용 결과로서, 그리고 이와 함께 비탄과 실망에서 분노, 분노에서 질투, 질투는 심술, 심술은 다시 비탄을 불러일으키며, 이들 순환이 완성될 때까지 인상들의 유사 연합은 계속되며, 반대로 고양된 기쁨에서 사랑, 관대함, 동정, 용기, 긍지 등의 정념이 일어난다는 관찰을 제시한다. 이렇게 인상들의 유사 연합을 통해 일어나는 다양한 정념들을 관통하는 성질들을 추적하면서 흄이 도달한 예비적 결론은 그것들이 고통과 쾌락과 관계있다는 것, 즉 "고통과 쾌락의 감각을 산출하는 성질"이라는 것으로서 "고통과 쾌락을 산출하면서도 그 이상의 즐거움이나 언짢음을 주는 고유한 성질"이다.(T, 285) 이 '예비적 고찰' 내지는 '일반론'(T, 282-287)에서 그것이 "근원적이며 자연적인 본능"과 이러한 작용과 감성을 "내면적으로 의식하는 자아 또는 개별적 인격", 그리고 정신의 근원적 성질의 지배를 받는 "사유의 특정한 방향", "정념의 감각 또는 특유의 정서" 등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인격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긍지와 함께 쾌락을 주는 반면에 추함은 소심과 고통을 주고, 장엄한 축제는 즐거움을 주지만 천박한 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듯이, 그와 같은 정념의 원인이 되는 성질이다.

흄은 특정한 간접적인 정념 혹은 "특정 인상 또는 정서를 산출하기에 알맞도록 자연은 이미 인간 정신의 각 기관을 알맞도록 배열했다고 가정해야 한다."(T, 287)고 말한다. 이는 다양한 정념들을 산출하는 보다 일반적인 원리와 성질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흄은 이를 발견하는데 '정념론'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친절하지 못한 흄의 설명들을 정리해보면,

19) 지성의 인상의 경우에는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의 관념연합이 모두 관계한다.

www.kci.go.kr

이에 대한 흄의 발견은 다소 산만하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성질은 “고통과 쾌락을 제거하면 실제로 긍지나 소심은 없다”고 했으므로 그 성질은 반드시 1) “고통이나 쾌락, 혹은 유쾌한 감각이나 고통스러운 감각”을 산출하거나 이와 관계있는 것으로서 “정념의 감각”이라는 속성과, 동시에 2) 정념의 대상으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의 관점을 지배하는 성질과 관계하는 것이어야 한다.(T, 286) 흄을 그것을 유용한 성질 혹은 공감과 관계 짓고 있다.

6. 남은 문제들

흄의 설명을 추적해 보면, 이중수반 관계를 관통하는 성질 혹은 속성은 기본적으로 쾌락 및 고통과 관계하면서 이에 추가된 부가적 성질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다. 가령, 흄은 말하기를, “오직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를 통해서만 부는 그 소유자에게 긍지와 허영심을 산출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전체적인 추리를 쉽게 끌어내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참된 본질은 삶의 쾌락과 편의성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의 실제 본질은 그 힘이 실현될 수 있는 개연성에 있으며, 또 참된 추론을 통해서나 혹은 거짓된 추론을 통해서나 그 능력은 쾌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감하도록 하는 원인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쾌락을 예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상당한 쾌락이다. … 부는 쾌락과 긍지의 원인이고 가난은 불쾌와 소심을 유발한다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권력은 반드시 쾌락과 긍지 따위의 정서를 산출하고, 예속은 반드시 불안과 소심 따위의 정서를 산출한다.”(T, 315) 이 구절에서 해명되고 있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부와 가난”에 관계하는 “쾌락과 편의성”이다. 이렇게 인간적 본성(적 경향성)과 자아의 관점에 수반하는 속성 또는 관계적 속성은 쾌락 및 편의성(불편함) 이외에 호의적인

www.kci.go.kr

것(실망하는 것), 유용성(쓸모없음), 아름다움(추), 새로움(진부함), 즐거움(언짢음), 놀라움(무심함), 고풍스러움 등에 들어 있는 '성질적 속성'(T, 308) 또는 '성향적 속성'(T, 309)이다. 이들 대부분은 흄이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자주 언급하는 "삶의 쾌락과 편의성"(T, 311, 315)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다.

다른 수반적 속성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나 가난의 관념은 불변적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아름다운 집이나 대저택에 느끼는 긍지가 집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관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무엇을 부나 가난으로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흄이 말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사회적 가치로 생각하느냐, 즉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신념에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신념들에 대한 자아의 평가적 판단이 이중수반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속성이다. 흄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우리가 그 지배력에 제압당할 경우에 권력의 허영심과 예속의 수치심 따위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욱 증대된다. … 사람의 소유물은 분명히 쾌락과 긍지를 낳지만, 다감한 이성적 존재를 제압하는 지배력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우리 자신의 처지와 다감한 이성적 존재자의 처지를 비교할 때, … 비교는 모든 경우에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증대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다. … 이 비교는 명백하고도 자연스럽다. 상상력은 원인 자체에서 비교를 발견한다."(T, 315-316) 때문에 "어떤 정념의 특성은 현재의 감각이나 순간적 고통 또는 순간적 쾌락 따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념이 발생되어 목적을 향하는 전체적인 추세와 성향을 통해 결정된다."(T, 381) 달리 말하자면, 인간 본성의 자연적 경향은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정념들 사이의 이중관계, 그리고 그에 포함된 충격이나 방향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본성적 성향, 성질, 속성이 정념에 미치는 영향의 일반적 원리만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정념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사라지고, 또 상호 전이를 촉진하거나 감소시키

www.kci.go.kr

는지 등에 대해서 무수한 경우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것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소견과 관계한다. 흄은 긍지와 소심에는 앞서 든 수반적 속성의 영향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대등하거나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본성의 성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다. 흄은 말하기를 "긍지와 소심 따위에 대해서는 이런 근원적 원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2차적 원인이 있으며, 이 2차적 원인도 그런 감정에 근원적 원인과 대등한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의 평판, 성품, 이름 따위는 긍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고려의 대상이며, 심지어 긍지의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덕, 아름다움, 부 따위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긍지를 낳는데 거의 영향력이 없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어떤 우회로를 택해서 먼저 공감의 본성을 설명해야 한다."(T, 316) 이렇게 자아를 매개로 한 이중수반의 관계적 속성인 공감은 유용성(혹은 유용한 성질들)과 함께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수반적 속성이다.

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직 공감의 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권력과 재산을 부러워하고, 비천함과 가난을 경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공감의 원리를 통해 부와 가난 등의 감정을 맛보며, 그 쾌락과 언짢음을 함께 체험한다."(T, 362) 이처럼 유용한 성질, 편의, 쾌락 등과 연관 지으면서 정념 및 정서에 수반하는 공감에 관한 언급은 흄의 '정념론'을 '정념과 공감'에 관한 저술로까지 읽히도록 만든다.

앞서 간접정념이 발생하는 수반 관계에서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자아에 대한 고려, 즉 공감적 자아는 간접정념과 또 그에 수반하는 정념들의 발생에 작용하는 수반 관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정념 발생의 이중수반적 관계를 특징짓는 근본적 속성으로서 공감은 인간의 본성적 경향성 및 자아의 관점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흄에게 공감은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되며, 즉 인간 본성이 갖는 가장 일반적 특성이며(T, 317), "미

www.kci.go.kr

움, 의분, 부러움, 사랑, 용기, 명랑, 우울 등 이 모든 정념을 나는 나 자신의 자연적 기질이나 성향 보다는 교류를 통해서 더 잘 느낀다."(T, 317) 인상과 관념의 관계에서처럼 모든 관념은 인상에서 유래하지만, 또 타인을 통해 전해진 감정의 관념은 다시 순간적으로라도 인상으로 전환되며, 실제로 그 정념 자체와 대등한 정서를 산출한다.(T, 317) 이렇게 "공감에는 관념에서 인상으로의 명백한 전환이 담겨 있다."(T, 320) 그리고 "다른 어떤 인상보다 우리 감정은 우리 자신과 정신의 내적 작용에 더 좌우된다."(T, 319) 만일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하는 정념의 원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나의 긍지는 공감을 통해서 더 강화된다. 긍지의 원인과 대상, 원인 인상과 관념, 관념과 인상의 이중관계에서 공감과 같은 2차 원인 내지는 인상의 개입은 느끼고 생각하는 자아(정념)으로서의 내가 어떤 무엇에서 쾌락과 유용성의 정념을 갖게 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는 인상과 관념의 이중관계의 실질적 과정을 지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다솜, 「흄의 정념과 도덕적 속성」, 『철학탐구』 제51집, 중앙철학연구소, 2018.

_____, 「흄의 자연주의 윤리학」, 중앙대학교, 2018.

맹주만, 『칸트의 윤리학』, 어문학사, 2019.

양선이, 「흄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반성개념의 역할과 도덕감정의 합리성 문제」, 『철학』 제119집, 한국철학회, 2014.

이준호, 『흄의 자연주의와 자아』, 울산: UUP, 1999.

최희봉, 「마음에 관한 흄의 견해 : 인간학, 상상력 그리고 인지과학」,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제72권, 2014.

Blackburn, S. *Ruling Pass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98.

Cohon, R., *Hume's morality. Felling and Fabr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Dicker, G., *Hume's Epistemology and Metaphys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Goldman, Alan H., *Moral Knowled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88.

Harrison, J., *Hume's Moral Epistemology*, Oxford: Clarendon Press.

Hume, D.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David Fate Norton and Mary J. Nort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_____(T), *A Treatise of Human Nature*, L. A. Selby-Bigge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_____(HU1) : *An Enquiry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La Salle: Open Court, 1988.

_____(PM),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Jerome B. Schneewind, Hackett Publishing Company, 1983.

www.kci.go.kr

_____, 『오성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4.
_____, 『정념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6.
_____, 『도덕에 관하여』, 이준호 옮김, 서광사, 1998.
Joyce, R., Expressivism, Motivation Internalism, and Hume, in Charles R. Pigden (ed.) (2009).
Kenny, A.,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3.
Mall, R. A., *Naturalism and Criticism*,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5.
Nuccetelli, S./Seay, G. (eds.), *Ethical Natu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_____, 『윤리적 자연주의』, 박병기, 김동창, 이슬비 공역, 씨아이알, 2015.
Nuyen, A. T., "Sense, Passions and Moral in Hume and Kant", *Kant-Studien* 82, 1991.
Oddie, G., Experience of Value, in Charles R. Pigden (ed.).
Owen, D., *Hume's Reason*, Oxford: Oxford Universoty Press, 1999.
Pigden, Charles R. (ed.), *Hume on Motivation and Virtue*, Palgrave Macmillan, 2009.
_____, If Not Non-Cognitivism, Then What?, in Charles R. Pigden (ed.).
Priest, S., *The British Empiricist*, New York: Routledge, 1990.
Prinz, Jesse J.,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_____, Is Empathy Necessary for Morality?, in Coplan A. and Goldie P. (ed.).
Quine, W. V. O., Epistemology Naturalized,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Russell, P., *Freedom and Moral Sentiment, Hume's way of naturalizing*

www.kci.go.kr

responsi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Smith, N. K. (1905), “The Naturalism of Hume”, in *Mind*, vol. XIV.

Sobel, J. H., *Walls and Vault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9.

Solomon, Robert C. (ed.), *Thinking about Feeling :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troud, B. (1993), “‘Gilding and Staining’ the World with 'Sentiments' and 'Phantasms'” in *Hume Studies* 19.

_____(1997), *Hume*, London: Routledge.

Waxman, W., *Hume's Theory of Conscious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www.kci.go.kr

Hume on the theory of passion and the relationalism of the double supervenience

Kim, Dasom (Chung-Ang Univ.)

In this paper I trace analytically the process of the occurrence of the passions which is accompanied by the evaluation of various constitutional interpreters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ism. Hume explains the occurrence of indirect passions as the double relation between ideas and impressions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passions.

However, explaining the occurrence of the passions through the double relation between ideas and impressions is not very kind. A simple principle is required to explain the complexities of the occurrence of the pass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 call that explanation principle a double supervenience relation that expresses the double relation between the tendency of human nature and self-mediated ideas and impressions and their mutu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Hume identifies the accompanying attributes of this relation with usefulness and empathy. Therefore, it is hoped that Hume will be able to explain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y developed in the orthodoxy more systema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ual water conservatism or relativism. These attempts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various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Hume's ethical theory. Hume identifies this supervenience relation with utility and sympathy.

I hope that the theory of passion of Hume can be explained more systema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uble supervenience

www.kci.go.kr

relationalism. These attempts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s with various interpretations and evaluations of Hume's ethical theory.

Key words: passion, perception, impressions, ideas, relationalism, double relation, double supervenience, relational property, supervenient property, sympathy, utility

김다솜 e-mail: kds-111@hanmail.net

투 고 일	2020년 01월 29일
심 사 일	2020년 02월 20일
게재확정	2020년 02월 20일

www.kci.go.kr